(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45 (2019. 10.), 30-49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19.10.45.30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으로 읽는 열왕기하 2:23-24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1566년 기오르기오 바사리(Giorgio Vasari)가 그린 '선지자 엘리사'에서 엘리사는 대머리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명화뿐만 아니라 성경 일화들을 주제로 그린 달력이나 그림 성경에서도 엘리사는 항상 대머리로 묘사되어 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고대 이스라엘 인물들의 모습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그의 신체적인 부분이 다른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하 2:23-24의 에피소드 덕분이다.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후 엘리사는 여리고를 지나 벧엘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한 무리로부터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조롱을 듣고 그들을 저주하여 곰에게 찢기게 하였다. 이 구절은 교회 강단에서 함부로 성직자들을 놀리거나 특별히 신체적 특징에 대한 조롱을 금하는 예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관심보다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신체를 조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을까라는 윤리적 측면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역문이 아닌 히브리어 원어로 돌아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찰을 통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Bar-Ilan University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겸임교수. adiofpooh@daum.net.

2. 연구사와 연구 방법론

지금까지 열왕기하 2:23-24를 독립적인 주제 아래 연구한 논문은 없다. 이 구절은 대체로 열왕기하의 주석이나 엘리사와 관련된 글에서 적은 분량 아래 다루어질 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존 그레이(John Gray)의 경우 <열왕기 상하>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구절을 벧엘에 있던 선지자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철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1] 로버트 컬리(Robert Culley)는 "잘못된 처벌"을 다룬 이야기[2]로, 귈림 존스(Gwilym Jones)는 선지자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3] 그 외의 자료들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이 구절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 부정적인 견해 덕분에 엘리사는 성질 급한 인물로 알려져 왔고 성직자를 함부로 험담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 왔다.

이 철없고 잘못된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는 왜 이제 막 선지자의 업을 시작하게 된 엘리사의 사역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는 처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비록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이야기는 드라마의 한 장면(scene)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장소, 등장인물, 대사, 액션 혹은 지문 등 희곡의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시대적 역사, 지리, 종교, 관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대의 우리에게는 생소한 경우가 있다. 덕분에 오역이 있기도 했고 잘못된 해석으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바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해 왔다. 그러므로 본고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해석을 통해 본문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질문한 왜에 대한 대답과 함께 이 이야기가 기록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밝히고자 한다.

3. 본문 해석

3.1. 장소: 벧엘 בֵּית־אֵל

이 드라마의 장소적 배경은 벧엘(בֵּית־אֵל)이다. 벧엘은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서 깊은 장소이다. 누지

1)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1), 479.
2) R. C. Culley, *Themes and Variations: A Study of Action in Biblical Narrative*, SBL Semeia Stud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5.
3) G. H. Jones, *I and II Kings*, New Century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389.

문서에 의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 유언을 통해 자식에게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다.[4] 가장 큰 유산을 받는 것은 대부분 장자였다.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야곱은 결국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다. 그는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피신하였고 여정 중 한 장소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잠에서 깨어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당시 루스라 불리던 이 장소를 벧엘 즉 "하나님(엘 אֵל)의 집(벧 בֵּית)"이라 불렀다(창 28:19).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벧엘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 상징적 장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스스로 "벧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혔으며(창 31:13)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을 할 때도 벧엘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기 때문이다(창 35:1). 이렇듯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축복의 계약을 맺은 곳으로 벧엘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종교적 장소가 되었다.

벧엘의 종교적 입지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꽤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여로보암은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과의 경쟁은 분명 그를 불안하게 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왕권을 강화할 때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백성들의 종교적 향수를 영토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5] 이 영토 안에는 다행히 족장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루살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벧엘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다. 성경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 땅이 요셉 자손에게 배분되었으며(수 16:1)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땅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 지역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종교적 조건과 함께 벧엘의 지형적 조건은 여로보암에게 유리하게 사용되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의 마지막 도시라는 지형적 입지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종교적 정통성을 사용하여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도록 종용하였다(왕상 12장). 그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는 율법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로 이미 토론

4) T. Meek, "Nuzi Akkadian", J.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19-220; C. Zaccagnini, "Nuzi", R. Westbrook,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Leiden: Brill, 2003), 565-617.

5) 존 브라이트,『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1), 324.

<그림 1> 분열 왕국 시대 지도

출처: Joshua J. Mark, "Israel", Ancient History Encyclopedia, https://www.ancient.eu/israel/ (2019. 7. 29).

된 바 있어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6] 아마도 여로보암에게 있어 금송아지는 최고의 신을 상징했고 사람의 모습을 한 신상이 아닌 상징만으로 여호와가 좌정하는 자리로 만들었기에 이 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7] 그러나 벧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될 수는 없었다. 열왕기상 13:1-10은 여로보암이 벧엘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자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가 임했고 그의 손이 말라버렸으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모스는 이 장소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저주했다(암 3:14; 4:4; 5:5). 또한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 벧엘의 제단과 산당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하고 있어(왕하 23:15) 벧엘은 이스라엘의 종교에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벧엘이 종교적 타락의 장소로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전통 아래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상 13:11은 여로보암의 송아지상과 잘못된 제단에도 불구하고 벧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열왕기하 2:3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벧엘에 갔을 때 이곳에 선지자의 제자들(בְּנֵי־הַנְּבִיאִי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앞으로 엘리야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냐고 되묻기까지 했을 정도이다.

벧엘의 위치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8] 사사기 21:19는 실로가 벧엘 북쪽, 르보나 남쪽, 벧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였고, 제롬은 주후 4세기 예루살렘 북쪽 12로마마일(Roman mile) 떨어진 지점에 벧엘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말했다.[9] 이를

6) 여로보암의 종교적 정책에 대한 토론은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5-215.

7) 존 브라이트,『이스라엘 역사』, 325; 고대 중동 지역에 동물의 형상 위에 신들이 서 있는 신상들은 참조, J.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Picture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163-170, 177-181.

8) 벧엘의 위치에 대한 토론은 참조, 임미영,『고고학으로 읽는 성경』(서울: CLC, 2016), 246-247.

9) D. Livingston, "Locating Biblical Bethel", Associates for Biblical Research, https://biblearchaeology.org/research/founders-corner/2702-locating-biblical-bethel (2019. 7. 29.).

토대로 라말라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랍어로 베이틴(Beitin)이라 불리는 장소가 벧엘로 추정되어 왔는데 베이틴의 마지막 '-인(in)'에 히브리어 '엘'의 어원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은 베이틴에서 구약 시대의 어떤 흔적도 아직까지 밝혀낸 바 없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베이틴보다는 오히려 베이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엘-비레(El-Bireh)라 불리는 언덕이 벧엘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11] 비록 벧엘의 유적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베이틴이 되었든 엘-비레가 되었든 두 유적지가 있는 곳은 북쪽의 길갈이나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동쪽의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벧엘을 거쳐 여리고로 간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약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로 상황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던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벧엘을 거쳐 가게 되어 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엘리사는 여리고에 들러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 기적을 행한 후 벧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벧엘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리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길에서 올라가다가 '네아림 크타님(『개역개정』-"작은 아이들")'을 만나 본고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부딪혔고 벧엘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서부터 북쪽 갈멜산으로 갔다(왕하 2:24-25). 당시 벧엘에는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도시 전반에는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네아림 크타님'일 수 있다.

3.2. 등장인물: 작은 아이들(네아림 크타님 נְעָרִים קְטַנִּים)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엘리사와 『개역개정』에서 작은 아이들로 번역한 '네아림 크타님(נְעָרִים קְטַנִּים)'이다. 성경은 그들 중 42명이 곰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어 이 드라마에 상당히 많은 엑스트라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극본이 있었다면 이 엑스트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 그레이는 아마도 이 역할을 벧엘의 선지자의 제자들 1, 2, 3, … 42의 번호를 붙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사건을 철없는 선지자들의 이야

10) E. Robinson and E. Smith,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 Mount Sinai and Arabia Petraea: A Journal of Travels in the year 1838*, vol. 2 (Boston: Crocker & Brewster, 1841), 125; H. Brodsky, "Bethel", D. N. Freedman, et al., eds.,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0), 710-712.

11) D. Livingston, "Locating Biblical Bethel".

기라고 보면서 이 아이들이 엘리야가 벧엘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와 만났던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고 보고 있다.[12] 그러나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면 성경은 분명 아이들이 아닌 그들의 역할을 적었으리라고 본다. 앞서 3절에서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저 아이들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같은 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경우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반복되어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왕하 2:5, 7, 15).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앞서 언급되어 있는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니라 벧엘 성읍에 살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네아림 크타님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8-10세 심지어 3-4세의 어린아이로 보아 이야기의 잔인함은 극대화되어 왔다.[13] 그러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 아이들의 연령을 확인하게 될 때 이야기의 구성은 달라진다. 더불어 이들이 조롱의 대사를 하게 된 경위와 엘리사의 마지막 액션의 당위성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히브리어로 돌아가 이 새로운 인물들의 연령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아이, 어른, 그리고 노인으로 나뉜다. 가장 어린 연령은 아이라고 불리는 '옐레드(יֶלֶד)'였다. '옐레드'는 '아이를 낳다'라는 뜻의 동사 '얄라드(יָלַד)'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로 번역되어 왔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어린이 시기를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로 아이들을 어른들의 작은 단위로 생각했다.[14] 어린아이의 시절을 끝내고 어른이 되는 나이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교 전통에 의해 13세에 '바르 미쯔바(בַּר מִצְוָה)'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하고 있다. 바르 미쯔바를 13세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제 성전이 파괴된 날 금식을 해야만 하는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5] 미쉬나는 13세가 되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16] 창세기 21:8에서 이삭이 아이였으나 자라 젖을 떼게 되자

---

12)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479; W. J. Bergen, *Elisha and the End of Prophetis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69.

13) W. 카이저 외 3명,『IVP 성경난제주석』, 김재영 역 (고양: IVP, 2010), 237.

14) Ph. Ariès,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R. Baldick,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2), 58; J. Blenkinsopp, "The Family in First Temple Israel", L. G. Perdue, et al., eds.,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66-69.

15) Genesis Rabbah, Toledot 63 בראשית רבה סג י (in Hebrew)

16) K. M. Olitsky, *An Encyclopedia of American Synagogue Ritual* (Santa Barbara: Greenwood Press, 2000).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드라쉬에 의하면 젖을 뗐다는 의미는 아이의 시절을 끝내고 성인 즉 13세의 나이에 도달했기에 이를 축복하는 성인식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의미가 사무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실로의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이때 아이는 아직 어렸다 즉 '한나아르 나아르(הַנַּעַר נָעַר)'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미 옐레드가 아닌 어른의 단계 중 가장 어린 나아르 혹은 현대의 청소년이라 불리는 연령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3세 이상은 다시 '나아르(נַעַר, 복수 '네아림' נְעָרִים)', '바후르(בָּחוּר, 복수 '바후림' בַּחוּרִים)', '자켄(זָקֵן, 복수 '즈케님' זְקֵנִים)'으로 그 연령대가 구분된다. 예레미야애가 5:13-14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에 ''바후림(בַּחוּרִים)'이 맷돌을 지며 '네아림(נְעָרִים)'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즈케님(זְקֵנִים)'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어른의 연령대를 구별하고 있고 더불어 그들의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이 구절에서 '바후림'은 청년으로 '네아림'은 아이들로 '즈케님'은 노인들로 번역했다. '즈케님'은 수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명사 '자칸(זָקָן)'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 수염을 기른 어른 즉 노인을 말한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수염은 오랜 삶을 통해 지혜를 갖게 된 어른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들은 성문에 앉아[17] 그들을 찾아와 묻는 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신 32:7) 지혜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고대 중동 지역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지만[18] 시편 저자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시 90:10)고 말하고 있고 다양한 성경 인물들이 고령의 나이까지 살았다. '즈케님'의 시작을 알리는 연령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시력과 기운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할 것이다.

어른을 구성하는 그래프에서 가장 넓은 연령 분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후르'였다. 잠언 20:29는 백발의 노인들에 반해 바후르의 영화는 그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 기운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바후르'는 군대의 구성원을 이룬 사람들로 자주 등장했다. 사사기 20:15-16은 전쟁에서 칼과 물매를 다루는 '바후르'를 언급하고 있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바후르'라고 부르고 있다. 민수기 1:3은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이들은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바후르'의 나이를 감안해 볼 수 있다. 사사기 14:10은 당시 '바후림'은 결혼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17) 성문에 앉아 상담이나 법률적 행위를 하는 장면은 룻기의 보아스가 그 예제이며 텔 단에서는 이러한 자리가 위치했던 곳이 발견된 바 있다. 참조,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132-133.

18) 필립 J. 킹, E. 로렌스 스태거, 『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역 (서울: CLC, 2014), 104.

풍속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62:5는 '바후르'가 처녀와 결혼한다고 말하고 있어 '바후르'는 결혼 적령기에 이른 성인임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통계는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성경적 자료를 토대로 남자는 20대에 심지어 30대 초반에 가서 결혼했던 것으로 보인다.[19]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은 결혼 첫해에 군복무가 면제되었는데(신 24:5) 그들의 늦은 결혼으로 인해 아이가 늦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에 나가 혹시 전사했을 경우 자신의 가문을 유지 할 수 없었기에 아이를 낳은 후 전쟁에 나가도록 하였다. 데이빗 프리드만(David N. Freedman)은 통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평균 20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26세 정도에 그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다.[20] 그의 계산을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바후르'는 결혼한 25세 이상의 아버지가 된 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힘 있는 성인을 말한다. 예레미야애가 5:13은 '바후림'은 맷돌을 지고 '네아림'은 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맷돌과 나무는 모두 생계와 관련된 일을 의미하지만 가벼운 나무를 지는 것에 반해 맷돌을 진다는 것은 식량을 조달하는 도구를 책임지는 가장의 의미로 여겨진다. 구약 시대의 맷돌은 아래짝만도 평균 4-10kg이 넘고 매일의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한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21] 그러므로 '바후림'은 적어도 한 가족을 책임지는 나이의 어른을 말한다.

예레미야애가 5:13-14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이들이 바로 '네아림'이다. 이들은 '옐레드'보다는 나이가 많고 '바후르'보다는 나이가 어린 현대의 청소년에서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아야 한다. 창세기 37:2는 요셉을 17세로 '나아르'라고 부르고 있다. 창세기 25:27은 에서와 야곱이 '네아림'이었을 때 이미 자신들의 생업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사기 8:20에서 기드온의 아들 여델이 전쟁에 참가했으나 아직 '나아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사기 20:15의 칼을 다루는 데 익숙한 '바후르'와 비교할 만하다. 여델이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인의 담대함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만약 그가 '옐레드'였다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여델을 전쟁에 참가하

19) Ibid., 78-79.

20) D. N. Freedman, "Kingly Chronologies: Then and Later (with an appendix by A. Dean Forbes)", S. Ahituv and B. A. Levine, eds., *Eretz—Isael* 24 (Avraham Malamat Volum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41-65.

21) 임미영, "전당 잡지 말라 – 신명기 24장에서 드러나는 율법의 휴머니즘적 사고", 노세영 편, 『성서, 이스라엘 그리고 경건』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36.

게 하고 적군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무엘상 2장은 성막의 제사에 참여하여 종교적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나아르'를 말하고 있어 그가 어린아이는 결코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은 그가 '나아르'였다고 말하고 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형들만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만약 그가 '옐레드'라 불리는 어린아이였다면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지만 사울의 군장이 맞을 만큼 성장한 어른은 아니었고 그가 아직 '나아르'였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블레셋은 그의 어림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르'는 그렇게 어린 것만은 아니다. 압살롬의 경우 아버지 다윗에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는 '나아르'로 불렸다(삼하 18:5). 그는 적어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나이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아르'는 '옐레드'에서 벗어난, 즉 만 13세부터 아직 장가를 가지 않고 아버지가 안 된 연령층을 부르는 단어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되어 가장의 역할을 하는 '바후르'가 되는 나이를 25세라고 보았을 때 현대인들에게 청소년 그리고 청년으로 불리는 연령을 '나아르'라고 보는 것이 맞다.[22] 아직 가장으로 무거운 맷돌을 책임지며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연령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무를 지어 집안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령을 '네아림'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네아림'은 다윗처럼 집안의 업을 잇기 위해 목동 일을 하거나 성막이나 궁전 혹은 선지자들을 위한 잡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었다고 보아야 한다.[23] 그런데 본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네아림'에게는 작다는 의미의 '크타님'이라는 형용사가 주어져 있다. '네아림'을 13-25세 사이라고 보았을 때 그들의 나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준다. 『개역개정』은 '크타님'을 "작은"이라고 번역했지만 '네아림'의 연령을 감안할 때 '젊은 혹은 어린 청년'이라든가 현대인에게 보다 익숙한 '청소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24] 이들은 13-17세 정도의 보다 아이들에 가까운 연령이었을 것이다. 그

22) 카이저(W. C. Kaiser)는 네아림의 나이를 12-30세로 보았다. W. 카이저 외 3명, 『IVP 성경난제주석』, 236.

23) J. K. Mead,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9), 113. 각주 45.

24) W. 카이저 외 3명, 『IVP 성경난제주석』, 236.

들이 '네아림'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했기 때문에 24절에서 곰에게 찢긴 42명의 '열라딤(אַרְבָּעִים וּשְׁנֵי יְלָדִים)'이라고 기록된 이유일 수도 있다.

이제 이 13-17세 정도 되는 벧엘의 어린 '네아림'이 왜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의 길을 방해한 것인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벧엘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 적어도 엘리사와는 상반되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그들의 대사 '알레 케레아흐(עֲלֵה קָרֵחַ)'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적어도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아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벧엘로 올라오고 있는 엘리사를 보았을 때 그들은 엘리야의 겉옷 '아데레트(אַדֶּרֶת)'를 입고 있는 엘리사를 보았을 것이다. 고대 중동 지역의 겉옷은 직사각형이나 반원 형태의 큰 천을 몸에 둘둘 말아 두르는 것이었다. 일교차가 크고 겨울에는 비로 인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중요한 필수품이었지만 일반인이 여러 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물었다.[25] 그렇게 때문에 율법은 겉옷을 저당 잡는 것은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밤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다(출 22:26[25]; 암 2:8). 엘리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항상 입던 같은 겉옷을 걸치고 벧엘을 거쳐 여리고로 갔을 것이다. 엘리사가 갖게 된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왕하 2:19)이라 인정하면서 물을 고쳐 달라는 기적을 부탁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엘리사가 벧엘에 들어왔을 때 일어날 파급을 벧엘의 '네아림'들은 두려워했을 것이다. 한때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제로 인해 가뭄을 선포했고 바알 선지자들과 승부를 벌였던 엘리야의 역할을 전수받은 엘리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질책받았던 벧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엘리사가 그들의 성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대사에서 더욱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

25)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의 의복 — 구약시대 의복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6 (2015), 149-150.

3.3. 대사: 대머리여 올라가라(알레 케레아흐 עֲלֵה קָרֵחַ)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42명 이상의 배우들의 대사는 단 두 마디였다. '알레 케레아흐, 알레 케레아흐(עֲלֵה קָרֵחַ עֲלֵה קָרֵחַ)'. 성경은 이 두 마디가 어마어마한 조롱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곰에게 찢겼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그들은 엘리사를 '케레아흐' 즉 대머리라고 부르고 있다. 엘리사의 사역 연대를 계산해 봤을 때 당시 엘리사는 25-30세 정도가 된 것으로 본다.[26]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네 명의 임금의 재위 동안 사역을 했고 이를 약 60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그의 사역 초기의 나이는 이제 막 '바후르'가 되었다고 본다. 대머리가 되는 신체적 현상이 반드시 노인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25-30세의 나이에 그가 대머리였다는 확신도 없다.[27]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이에 비해 일찍 대머리의 현상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은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왜 조롱에 해당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 대머리는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신체적 조건은 아니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언서들은 하나 같이 이스라엘이 대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3:24는 대머리를 썩은 냄새와 굵은 베옷, 그리고 수치스러운 흔적과 함께 나열하고 있다. 예레미야 47:5는 블레셋 사람의 멸망 가운데 유린의 흔적으로 가사가 대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압의 멸망은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게 될 것으로 표현되었다(렘 48:37). 이스라엘 민족 역시 에스겔 7:18, 아모스 8:10, 미가 1:16에서 멸망으로 인해 대머리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은 마치 황폐함을 상징하고 결국 멸망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 덕분에 레위기 21:5는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머리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레위기 13:40-41은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미 대머리니 정하니라"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머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대머리를 불경하게 여기는 것으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덕분에 이러한 율법을 기록해야만 했을 것이다.

---

26) W. 카이저 외 3명,『IVP 성경난제주석』, 236.

27) 카이저는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대머리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대머리였을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W. 카이저 외 3명,『IVP 성경난제주석』, 236.

<그림 2> 텔 이스마르에서 발견된
수메르 제사장상

출처: Oriental Institute Museum,
Chicago; 임미영 소장 사진.

<그림 3> 네페르-론펫(Nefer Ronpet)의
무덤에서 발견된 13왕조 시대
이집트 제사장의 모습

출처: Priests of Ancient Egypt,
www.ancient-egypt-priests.com.

율법적 규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대머리는 여전히 부정적 의미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지 머리숱이 없다는 외형적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두드러진다. 대머리가 정한 것임에도 왜 제사장은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는 고대 중동 지역의 종교 문화에서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율법 덕분에 고대 이스라엘의 도상학은 발전할 수가 없었던데 반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같은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의 벽부조와 벽화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문화적 자료를 남겨주었다. 주전 3000-2300년경 유물로 보이는 텔 아스마르(Tell Asmar)를 비롯한 수메르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된 형상들 중에는 경배의 자세로 손에 제사 용기를 들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28] 제사장들로 알려진 이 형상들은 머리숱을 깨끗이 밀어 대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더불어 우르에서 발견된 상아판의

28) H. Frankfort, *The Art and Architecture of the Ancient Ori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figs 39, 41-42, 52, 55.

수메르의 지배층으로 보이는 인물 역시 대머리의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 공물을 받고 연회를 즐기고 있다.[29] 이집트의 경우 대머리는 더욱 대중적이었다. 나일강으로 인해 습한 이집트의 고대인들은 위생을 목적으로 몸 전체의 털을 밀었던 것으로 유명하다.[30] 남자의 경우 성인이 되면 한 쪽으로 길렀던 머리카락을 밀어 가발로 만들고 머리털은 항상 깨끗이 면도했다. 고대에는 자주 머리를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털이 없으면 냄새와 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집트의 도상학에는 가발을 쓰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 대머리를 부정하게 보는 요인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주변 국가의 종교를 구별하는 수단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벧엘의 '네아림'은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대머리라고 불렀다. 이는 그를 마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종교적 지도자로 부르는 조롱의 의미를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실제로 대머리라 할지라도 말이다.

'네아림'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데 사용한 또 다른 단어는 '알레'이다. '알레'는 동사 '알라(עָלָה)'의 명령형으로 '올라가라'는 의미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일까? 이 동사는 열왕기하 2:11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플로 마에제르(F. Maeijer)는 그들이 "엘리야가 올라갔던 것처럼 하라. 그래서 네가 제 2 엘리야인 것을 증명하라."[31]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고가 토론한 바에 의하면 '네아림 크타님'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로 벧엘로 엘리사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에게 엘리사가 굳이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일침을 가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그 땅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그의 겉옷을 입고 그의 능력을 물려받은 자가 나타난 것은 그들의 삶에 다시금 걸림돌이 등장했다는 것과 같다. 결국 그들은 엘리사에게 그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즉 우리에게서 떠나라,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다. 보다 모욕적인 말로는 "이곳에서 꺼져라, 사라져라"가 될 것이다.[32] 그들은 엘리사

29) Ibid., fig. 76.
30) P. D. Manuelian, *Egypt: The World of the Pharaohs* (Bonner Straße, Cologne Germany: Könemann Verlagsgesellschaft, 1998), 405.
31) F. J. Maeijer, "Elisha as a Second Elijah: In the Period of the Prophetic Actions Aga inst the Baal Policy of the House of Ahab", Ph.D. Dissertation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89), 18.
32) W. 카이저 외 3명,『IVP 성경난제주석』, 236.

가 벧엘로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벧엘에서 하나님 신앙과는 다른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쏟아 낼 종교적 질책을 피하기 위해 방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저주로 돌아왔다.

3.4. 액션/지문: וַתֵּצֶאנָה שְׁתַּיִם דֻּבִּים, מִן־הַיַּעַר, וַתְּבַקַּעְנָה מֵהֶם

이제 드라마는 절정에 도달했다. '네아림 크타님'의 조롱을 듣고 그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았다. 그가 대사를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문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마치 드라마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행동의 묘사는 앞으로 그가 할 대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 주기도 한다.[33] 성경은 엘리사의 대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아림 크타님'을 저주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그의 저주는 같은 장의 21절에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34]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 부르며 그들의 물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러 그들에게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는 다르게 벧엘의 '네아림 크타님'은 엘리사가 벧엘로 오는 것을 저지하고 '꺼져버리라'는 말과 함께 그를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흔히 하고 있는 대머리로 불렀다. 그들의 조롱은 선지자 엘리사를 넘어 이스라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과 같았다. 신명기 18:18-19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를 세울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레위기 24:16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와이즈맨(D. J. Wiseman)은 이 두 구절을 통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독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과 같고 결국 율법은 이를 죄로 규정짓고 있다고 주장했다.[35]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슬러 여호와에게 청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때에 여호와는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레 26:22)고 율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33) W. J. Bergen, *Elisha and the End of Prohetism*, 70.

34) J. K. Mead,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113.

35) D. J. Wiseman, *1 And 2 King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Madison: Intervarsity Press, 1993), 198.

조롱한 네아림 크타님에게 내려진 형벌은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그들을 찢은 것이었다(וַתֵּצֶאנָה שְׁתַּיִם דֻּבִּים, מִן־הַיַּעַר, וַתְּבַקַּעְנָה מֵהֶם). 현재 벧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이 곰들이 나왔다는 숲의 유무 역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수리아의 곰이 이 시기에 아직 멸종되지 않았었고 벧엘로 추측되는 베이틴이나 엘 비레가 위치해 있는 중앙 산지 지역에 산이 많고 삼림이 우거진 지역이 많아 곰들이 살고 있었을 확률은 높다.[36] 액션의 결과는 처참했다. 비록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곰에게 찢긴 상처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었다. "찢었더라"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바카(בָּקַע)'로 본 구절에서는 칼(Qal)동사의 형태가 아닌 וַתְּבַקַּעְנָה로 피엘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피엘(Piel)동사는 칼(Qal)동사의 표현일 때보다 폭력적이게 되기 때문에[37] 잔인함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후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대하 36:16)는 말씀을 상기시킨다.[38] 벧엘의 '네아림 크타님'의 엘리사에 대한 저주는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들 스스로의 몸이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벧엘로 이르는 여호와의 경고와 축복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나가는 말

한 드라마의 같은 장면을 보고도 평론가들은 다른 견해와 해석을 내어놓곤 한다. 이는 아마도 각자의 자라온 환경과 교육적 배경, 감성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이 드라마를 쓴 작가와 연출한 감독의 배경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때 이 장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23-24의 장면 역시 그 배경과 의도로 돌아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할 때 7-8세 정도의 아이들을 저주한 괴팍하고 성질 급한 대머리 엘리사는 잊어야 할 것이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겉옷을 입고 여호와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벧엘로 올라가고 있었다.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벧엘에서도 그들을 만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벧엘

36) J. 월튼 외 3명, 『IVP 성경배경주석』 (고양: IVP, 2010), 554.
37) *BDB*, 132.
38) W. 카이저 외 3명, 『IVP 성경난제주석』, 237.

로 들어가지 못했다. 벧엘로 올라가는 길에 '네아림 크타님'과 만났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네아림'의 연령을 추측해 볼 때 '네아림'은 어린이의 연령에서 벗어난 13세-25세 사이의 청소년 혹은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 보아야 한다. '네아림 크타님'은 "작은" 아이들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청년 혹은 청소년'이라고 보며 13-17세로 추정된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한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어린아이들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아니라 어린 청년들이 의도적으로 말한 조롱의 언사였다.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제사장들이 대머리였던 모습에 반해 이스라엘은 대머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엘리사가 25-30세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그가 대머리였을 확률은 적다. 그러므로 대머리라고 엘리사를 부른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 종교의 지도자로 치부하는 모독이었다. 또한 그들을 종교적으로 비난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된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올라가라"라는 표현을 통해 '사라져라, 꺼져라' 같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었다. '네아림 크타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언행은 곧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 18:18-19)라는 말씀 아래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레 26:22)는 형벌을 받아 암곰 두 마리에 찢기는 처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들이 형벌을 받은 것은 엘리사의 신체적 조건을 조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 여호와의 선지자의 사역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벧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을 것이며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제에 칼을 드시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엘리사, 벧엘, 네아림 크타님(נְעָרִים קְטַנִּים), 대머리, 올라가라.
Elisha, Bethel, *nearim ktanim*(נְעָרִים קְטַנִּים), Baldhead, Go up.

(투고 일자: 2019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10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네페르-론펫(Nefer Ronpet)의 무덤에서 발견된 13왕조 시대 이집트 제사장의 모습, Priests of Ancient Egypt, www.ancient-egypt-priests.com (2019. 7. 29).

분열 왕국 시대 지도, Joshua J. Mark, “Israel”, Ancient History Encyclopedia, https://www.ancient.eu/israel/ (2019. 7. 29).

브라이트, 존,『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1.

윌튼, J. 외 3명,『IVP 성경배경주석』, 고양: IVP, 2010.

임미영,『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서울: CLC, 2016.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의 의복 — 구약시대 의복을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36 (2015), 137-166.

임미영, “전당 잡지 말라 - 신명기 24장에서 드러나는 율법의 휴머니즘적 사고”, 노세영 편,『성서, 이스라엘 그리고 경건』,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카이저, W. 외 3명,『IVP 성경난제주석』, 김재영 역 , 고양: IVP, 2010.

킹, 필립 J., 스태거, E. 로렌스,『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역, 서울: CLC, 2014.

텔 이스마르에서 발견된 수메르 제사장상, Oriental Institute Museum, Chicago; 임미영 소장 사진.

Ariès, Ph.,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R. Baldick,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2.

Bergen, W. J., *Elisha and the End of Prophetis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Blenkinsopp, J.,“The Family in First Temple Israel”, L. G. Perdue, et al., eds.,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48-103.

Brodsky, H.,“Bethel”, D. N. Freedman, et al., eds.,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0, 710-712.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Culley, R. C., *Themes and Variations: A Study of Action in Biblical Narrative*, SBL Semeia Stud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Frankfort, H., *The Art and Architecture of the Ancient Ori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Freedman, D. N., “Kingly Chronologies: Then and Later (with an appendix by A. Dean Forbes)”, S. Ahituv and B. A. Levine, eds., *Eretz—Isael* 24,

Avraham Malamat Volum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41-65.

Gray, J., *I & II King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1.

Jones, G. H., *I and II Kings*, New Century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Livingston, D., "Locating Biblical Bethel", Associates for Biblical Research, https://biblearchaeology.org/research/founders-corner/2702-locating-biblical-bethel (2019. 7. 29.).

Maeijer, F. J., "Elisha as a Second Elijah: In the Period of the Prophetic Actions Aga inst the Baal Policy of the House of Ahab", Ph.D. Dissertation,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89.

Manuelian, P. D., *Egypt: The World of the Pharaohs*, Bonner Straße, Cologne Germany: Könemann Verlagsgesellschaft, 1998.

Mead, J. K., "'Elisha will kill'? The Deuteronomistic Rhetoric of Life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the Elisha Narratives",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9.

Meek, T., "Nuzi Akkadian", J.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19-220.

Olitsky, K. M., *An Encyclopedia of American Synagogue Ritual*, Santa Barbara, California: Greenwood Press, 2000.

Pritchard, J., ed., *Ancient Near Eastern Picture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Robinson, E. and Smith, E.,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 Mount Sinai and Arabia Petraea: A Journal of Travels in the year 1838*, vol. 2, Boston: Crocker & Brewster, 1841.

Wiseman, D. J., *1 And 2 King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Madison: Intervarsity Press, 1993.

Zaccagnini, C., "Nuzi", R. Westbrook,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Leiden: Brill, 2003, 565-617.

<Abstract>

Reading of 2 Kings 2:23-24 in Light of Geographical,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

MiYoung Im
(AnYang University)

Even if critics see the same scene in a drama, they often give different reviews and interpretations. This i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mpressions depending on their own social environment, educational background, and emotional responses. Only when critics try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the director(writer) who wrote the drama and the director who directed it, can they grasp the true meaning of a scene. When it comes to the scene of 2 Kings 2:23-24, biblical scholars also need to return to its background and intent. When we understand the geographical,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 of its era, we can forget about the wacky and fiery Bald Elisha, who has cursed little children.

After Elijah's ascension, Elisha wearing his master's coat (אַדֶּרֶת) went up to Bethel where there were religious troubles. He would have met the sons of the prophets in Bethel as he had met them in Jericho. But he could not even enter Bethel because he was blocked by 'nearim ktanim (נְעָרִים קְטַנִּים)' on the way there. The exact meaning of this phrase requires clarification. First, there are various examples of 'nearim' in the Bible. The term can refer to young m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25 years. This range of ages means that the 'nearim' were at the age of marriage, but they probably had not yet become fathers. The word 'ktanim' used to be translated as "little"but this word rather means 'young' in this phrase. Thus the ages of 'nearim ktanim' must be estimated at around 13-17. They were old enough to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words and actions. They might be immature but they were not childish when they spoke the words "Go up, baldhead (עֲלֵה קֵרֵחַ)!" They meant to tease Elisha, the prophet of YHWH. Despite the fact that the priests of Egypt and other nations were bald, Israel had a negative view of baldness. Given that Elisha was 25-30 years old at the time, he was less likely to be bald. Therefore, it was a blasphemy to call Elisha a bald man because they were referring to him as the leader of foreign

religion, not as YHWH's prophet. Elijah, who chastised them went up (alla עָלָה, meaning "to go up") into heaven and did not bother them anymore. The same word 'alla' was used against Elisha. They told Elisha to go up, meaning that as Elijah went up and disappeared,"Elisha, you too, go away, get out of here, disappear, and do not bother us." The act of insulting the prophets of YHWH was to mock YHWH. They were punished based on "Whoever does not listen to my words, to those who speak in my name will be punished by me" (Deu. 18:18-19) and "They will send wild animals among you, and your ways shall be desolate"(Lev 26:22). The result was terrible. Two female bears came and tore them apart. It was not because of their mockery of Elisha's physical condition that they were punished, but because of their faithlessness in interfering in the ministry of YHWH's prophet. The rumor about this event in Bethel likely spread throughout Israel and proclaimed that the Lord had started to pass judgment on Israel's religious problems.